1) 모 시

(1) 재 배

모시풀은 온난하고 습윤한 곳에서 잘 자란다. 번식은 종자로 할 경우보다 장점이 많은 영양번식 방법을 사용한다. 즉 흡지를 12㎝ 정도 잘라서 모종으로 쓰거나 세절 흡지를 4.5~6.0㎝로 잘라 모판에서 육모하여 모종으로 쓰거나 줄기를 잘라서 꺾꽂이하는 방법이다. 재식 거리는 이랑 나비 60~70㎝, 포기 사이 25㎝로 하여 10ha당 7,000그루 꼴로 심는다. 밀식하면 좋고 한 번 심으면 땅속줄기가 자라나서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생하지만 옮겨 심을 때에는 음력 정월 그믐경이 좋다.
2월이면 새싹이 나며 거름을 두 번 정도 주고 4월 말~5월 초에 초벌을 벤다. 6월 말이나 7월 초순경에 다시 베고, 세번째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베는데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은 6월 말~7월 초순경에 수확한 것이다. 수확의 적기는 줄기의 밑둥이 갈색으로 변하고 밑에 있는 잎이 떨어질 때이며, 너무 빨리 베면 섬유가 약하고 모시올이 억세어 굵어진다.[1)]

(2) 제 직

① 태모시
모시풀이 성숙하면(직경 1.5~2㎝의 굵기) 밑둥에서부터 베어서 잎과 옆가지를 대칼(죽도)로 친 후 저마의 굵기와 길이, 품질의 상하를 분류하여 직경 30㎝ 정도로 묶어 5~6시간 정도 물에 담가둔다. 다음은 모시칼로 1개의 줄기에서 2장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도중에 끊어짐 없이 긴 것이 좋다. 이것의 겉껍질을 모시톱으로 벗겨내면 하얀 속껍질만 남는데 이를 태모시라고 한다. 태모시는 한 줌씩 묶어 하루종일 물에 담갔다가 볕을 쪼인다. 우수한 품질의 모시를 얻으려면 물에 담갔다가 볕을 쪼이는 과정을 5~7일 정도 여러 번 반복한다. 섬유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껍질을 벗기기 전에 더운 물에 담가 산화효소를 파괴시키는 방법도 있다.

② 굿모시(모시타래)
모시쪼개기 : 태모시를 가늘게 쪼개어 모시실 타래를 만드는 작업이다. 태모시를 다시 물에 적셔서 한 꼭지(한 가래)를 왼손 엄지에 휘어 감고(이를 모시짝이라 한다), 오른손으로 한 올씩 잡아 앞니로 찢어 구멍을 뚫은 다음, 오른손 둘째손가락으로 훑어내린다. 이렇게 모시올을 쪼갤 수 있는 한도까지 잘게 쪼갠다. 이 작업이 다 끝나면 꼭지머리의 것을 풀어서 모시톱으로 빗겨 분리가 잘되도록 가지런히 한다. 이 작업에서 세저(細苧)·중저·막저 등의 모시의 품질이 정해진다.
모시삼기 : 쪼갠 모시올을 연결하는 작업을 모시삼기라고 한다. 태모시를 전지(쩐지) 위에 걸어놓고 손바닥에 침을 발라가면서 한 올을 꼭지머리로, 다른 한 올은 머리 반대쪽을 서로 연결하는데 이는 허벅지에 대고 비벼서 잇는다. 이렇게 삼아 광주리에 사려놓은 것을 모시굿(타래)이라 한다. 서천군장에 나오는 모시굿은 19개가 되어야 모시 1필이 된다.

---

1) 한국의류학회, 앞의 책.

③ 필모시

모시날기 : 모시올의 굵고 가늘기에 따라 새(升)가 정해지며 보통 10새 이상이면 세모시(세저)라고 한다. 대체로 8~9새(특히 8승 3모)를 많이 짜고 있다. 1새는 80올이며 모시 10올을 1모라 한다. 모시를 나는 데에는 보통 10개의 모시굿이 사용된다. 모시날기는 날줄의 잉아올과 사올, 모심과 모심을 구분하는 작업으로 직물의 경사가 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조슬대 앞에 10개의 모시굿을 분리시키고 그 위에 실을 뽑을 때의 윤활제로 쌀겨를 뿌려놓는다.

10개의 모시굿에서 조슬대를 통과하여 풀려 나오는 10줄의 모시올을 한 모심이라 한다. 첫번째 한 모심의 끝을 13에 고정시킨다. 조슬대의 10개의 모시올을 오른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5개씩 잉아올(ㄱ·ㄷ·ㅁ·ㅅ·ㅈ)과 사올(ㄴ·ㄹ·ㅂ·ㅇ·ㅊ)을 구분하여 1과 2의 막대에 끼우고 3과 4에는 한 모심이 같은 쪽으로 통과한다. 1·2·3·4를 통과한 첫번째 모심이 5에서 13까지 지나면 다시 두번째 모심이 시작된다. 이러한 모심이 8번 거듭되면 8모심이 되고 이를 한 새라고 한다. 모시날기가 끝나면 1과 2는 참새, 3과 4는 헛새라고 하여 긴 막대기로 갈라놓는다. 마지막으로 13을 통과한 곳을 가위로 잘라 끝을 묶어둔다. 이 작업은 약 3시간 소요된다.

모시매기 : 모시매기란 모시를 짤 때 모시올의 이음매를 매끄럽게 하고 꺼끄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손질하는 과정이다. 참새와 헛새를 끼우고 바디에 쓰는 작업을 한다. 첫 모심을 찾아 오른손가락 사이에 2줄씩(잉아올 1개·사올 1개) 끼우고, 맨 가장자리는 4줄(잉아올 2개·사올 2개)을 끼워 튼튼하게 한다. 이 작업 후 바디의 바로 뒤에 있는 참새를 바디 앞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참새를 가까이하면 잉아올과 사올이 완전히 구분되어 바디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묶음으로 옮겨놓는다. 두번째의 참새를 바디 앞으로 밀어 참새와 참새 사이의 엇갈림(X자형)을 만들어 그 속에 사침대를 끼우면 된다. 이것으로 바디쓰는 일이 다 끝난다.

바디쓰기를 하고 끝을 묶어 막대기를 끼워서 도투마리에 맨 곳과 끝이 팽팽하도록 반대편의 끝

을 끄시렁끌(끄시코라고도 불리는 전라도 사투리로 실제 베를 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실이 끌려온다는 뜻)에 묶는다. 팽팽하게 늘여놓은 모시올의 밑에 멥쌀겨 불을 피워놓는다. 생콩가루에 소금(습기를 모아두는 성질이 있어 여름에는 많이 넣고 겨울에는 조금 넣는다)을 넣고 찬물에 개서솔(소나무 뿌리의 심으로 만듦)에 묻혀 풀칠을 하여 빗는다. 모시 1필에 콩 반 되가 든다. 도투마리를 조금씩 돌리면 끝에 있는 끄시렁끌이 조금씩 끌려오며, 더 이상 끌려올 수 없으면 모시매기가 끝난다.

꾸리감기 : 꾸리란 씨실을 말한다. 꾸리감기는 손으로 감는 방법과 꾸리틀(서천군 화양면의 정정순 집에서 고안해 만든 것)을 이용하여 전대로 감는 법이 있다. 이때 모시굿을 바구니에 넣고 그 위에 강낭콩·아주까리·율무·보리 중에서 한 가지를 한 움큼 올려놓으면 엉키지 않고 매끄럽게 잘 끌려 나온다. 이것을 북에 넣어 씨줄로 이용한다.

모시짜기 : 모시매기한 것을 베틀에 올려놓고 꾸리를 넣은 북을 사용하여 짠다. 모시짜기의 시기는 봄부터 초가을까지이나 가장 좋은 시기는 삼복이다. 가을에서 초봄까지는 한랭하고 건조하여 모시올이 잘 끊어진다. 여름에도 모시올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기가 있는 움집이나 토굴에서 직조하는 것이 좋다. 베틀은 대부분 개량식 베틀을 사용하고 있다.

표백 : 짜인 생모시를 그냥 사용하기도 하나 대부분 표백을 하여 사용한다. 생모시로 옷을 지어 입을 때에는 1~2년 창호지에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사용하면 색이 곱고 윤이 난다고 한다. 표백은 주로 잿물에 삶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증방(烝房)에서 쪄서 마전을 하기

도 한다. 이때 마전을 조금만 하고 치자물을 엷게 들이면 고운 색의 반저(半貯)가 된다.